

창립 30주년 맞는 대한기생충 학회

10월 26, 27일 기념 심포지움 개최

대한기생충학회가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이해 기념 심포지움을 개최한다.

지난 59년 창립된 이래 대학기생충학회는 각종 기생충에 대한 새로운 발견과 연구활동을 활발히 전개함으로써 우리나라 의학발전과 기생충 퇴치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한편, 오는 10월 26일부터 2일간 유성리베라 호텔에서 개최되는 기념 심포지움은 “우리나라 기생충 질환 연구의 변천 및 전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각종 기생충에 대한 연구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주요 발표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서론(조승열, 중앙의대)
- 아메바증(소진탁, 원광의대)
- 자유생활 아메바증(임경일, 연세의대)
- 특소플라스마증(최원영, 가톨릭의대)
- 회충증(서병설, 한국건강관리협회장)
- 간흡충증(임한중, 고려의대)
- 폐흡충증(최동익, 경북의대)
- 장내흡충증(이순형·채종일, 서울의대)
- 조충증(민득영, 연세의대)
- 의용곤충학(이한일, 연세의대)
- 수의기생충학(장두환)

- 기생충학교육(이순형, 서울의대)

서기홍사무국장, 양재희 과장, 일본 나고야 공중의학연구소 방문

전협 서울시지부 서기홍 사무국장과 본부 양재희 사업2과장이 일본 나고야 공중의학연구소의 초청으로 일본을 방문, 일본 예방의학사업의 현황을 시찰하고 귀국했다.

이들은 예방의학사업의 활동과 운영방향에 대한 상호 교류를 목적으로 지난 9월 17일부터 24일까지 8일간 일본에 체류하면서 일본 예방의학사업의 이모저모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보다 적극적인 상호 교류를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이들은 체류기간 중인 20, 21일 양일에 걸쳐 일본 시즈오카에서 개최되었던 제33회 예방의학사업 추진 전국대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미 8군 한인직원 “당뇨질환” 건강교육

健協 서울시지부는 지난 9월 11일, 미 8군 내에 근무하는 한인직원을 대상으로 “당뇨질환”에 관한 건강교육을 실시했다.

10월 건강관리 공개강좌 “신장질환”

오는 10월 24일, 오후2시, 홍보관

健協 서울시지부는 10월 건강관리 공개강좌를 오는 10월24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홍보관에서 실시한다.

이번 강좌의 주제는 “신장질환”으로 신장질환의 증상, 원인, 합병증, 치료와 예방 등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 공개강좌 참석자들이 일상 생활에서 겪게 되는 건강문제에 대한 질문과 답변도 나누게 된다.

한편 지난 9월26일에는 9월 공개강좌로 “성인병과 영양관리”에 대한 강의가 연세대 가정연구원장인 이양자 교수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날 공개강좌에서는 성인병과 관계있는 식품에 대한 설명을 비롯해 현대인의 건강을 위한 영양관리의 원칙, 방법등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다.

에이즈 상담에 철저히 지시

- 보사부, 비밀절대보장등 요구

최근 동성연애자를 비롯한 에이즈 감염 우려자가 헌혈에 의하여 에이즈검사를 하고 있어, 수혈에 의한 에이즈 전파가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사회부는 에이즈 감염우려자에 대한 검사를 체계화, 확대함으로써, 에이즈 전파를 사전에 막기 위해 에이즈 홍보 계몽 및 상담에 철저히 기하도록 본회를 비롯한 상담기관에 이를 지시했다.

보건사회부는 전화 혹은 내원 상담자들에게 익명에 의한 검사가 가능하며, 절대 비밀이 보장되므로 정상적 경로를 통해 검사를 할 것을 적극 권장해 줄것을 당부

했다.

또한 보사부는 상담자 감염우려자가 원할 경우, 보건소 등 국·공립기관에서 무료검사를 해주기로 했다.

내년도 사업운영 방침 논의

- '89. 제 3 차 사무국장회의서

健協은 '89년도 제3차 사무국장 회의 를 지난 9월25일부터 2일간 전북 전주에서 가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89년도 사업실적 및 운영에 대한 평가·반성과 '90년도 건강관리사업의 운영 방침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